

## 한국을 알리는 침병이 되다

- › 활동기관 : 콜롬비아 산탄데르 주 정부
- › 자문분야 : 재해재난관리
- › 자문내용 : 문화 교류, 국민 외교
- › 성 명 : 오 창 건



약 30여 년의 공직 생활, 그리고 굴지의 건설 기업에서 누리던 만족할 만한 직책과 보수. 하지만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NIPA의 퇴직 전문가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그 결과 본인은 현재 콜롬비아 산탄데르(Santander) 주 정부의 재해 재난 관리 자문관으로 2년째 근무하고 있다. 내가 남미의 콜롬비아를 선택한 이유는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지식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앞으로 블루 오션(Blue Ocean)으로 떠오를 남미 대륙의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한때 UN 파견 근무를 하며 아프리카 앙골라, 아프가니스탄, 네팔 등에서 근무를 했고, 유럽과 아시아권 나라들은 이런저런 여행 등으로 어느 정도 친숙했지만, 남미는 상대적으로 미지의 대륙이었다.

### 현지 공항에서의 첫 시련

장장 21시간에 달하는 비행 끝에 도착한 산탄데르 주의 주도(州都) 부카라망가(Bucaramanga). 비행시간 내내 본인을 마중 나온 사람이 없을까 봐 좌불안석이었던ني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출발하기 전 이곳 담당자와 전자 우편으로 연락했지만 공항에 나온다는 답장은 받지 못했던 것이다. 더욱이 스페인어로는 의사소통이 불가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마중을 나오지 않는다면 큰 곤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콜롬비아로 출발 전 가족과 인천 국제공항에서



산탄데르 주 정부 청사

그러나 나의 시련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시작되었다. 수화물 가방 1개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짐을 기다리던 승객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마침내 컨베이어 벨트가 멈췄는데도 나의 가방은 보이지 않았다. ‘아! 콜롬비아에서의 첫 시련이 시작되는구나!’ 하필 잃어버린 가방에는 1년 동안 생활에 필요한 각종 필수품들이 들어 있었다. 한국에서야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에 크게 당황했다.

그런 와중에서도 누군가 공항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나갔더니 이름과 ‘환영’이라는 글씨를 적은 표지판이 눈에 들어 왔다. 그와 간단한 인사 후 상황 설명했더니 나를 다시 공항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수화물 분실 신고를 해주었다. 주 정부로 이동



1) 본인의 사무실에서 2) 함께 근무하는 주 정부 기획국 직원들

하던 중 일단 통신 수단이 필요할 것 같아 현지 휴대 전화를 구매하였고 수화물 분실과 관련하여 대사관과 통화까지 마쳤다. 불행 중 다행으로 분실했던 짐은 나중에 정부 관계자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었다.

### 피죄죄한 행색으로 첫인사를 나누다

우리나라 남한의 12배 크기로, 남미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이어 3번째로 큰 나라이다. 본인이 근무하는 산탄데르 주는 콜롬비아의 32개 주 중 하나로 주 정부에 외국인이 근무하는 것은 내가 첫 번째였다.

주말 동안 거처를 정하고 짐도 정리하기 위해 현지 도착 날짜를 금요일로 조정했었다. 월요일에 깔끔한 복장으로 주 정부에 첫인사를 하려던 것이었는데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20시간이 넘는 비행과 꼬깃꼬깃한 옷, 그리고 면도도 하지 못한 피죄죄한 모습으로 공항에서 곧장 주 정부로 이동해 주지사를 비롯해 주요 직위자를 대면하게 된 것이다. 인사를 나누고, 내 소개를 하고, 점심 식사까지... 피곤함 때문이었는지 행색이 부끄러워 서였는지 무얼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정신없는 시간이 지났다. 나중에 들으니 주 정부에 처음으로 일하는 외국인이었기에 영입 절차나 업무 수행 절차 등 매뉴얼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다. 어쨌든 못 봐줄 만큼 엉망인 모습을 실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주 정부 관계자들의 이해와 배려로 도착 첫날의 갑작스런 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다사다난한 하루를 보낸 후 긴장이 풀려서인지 피로가 밀려왔다. 현지에서 근무하는 KOICA 봉사단원의 도움으로 정부 청사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호텔을 숙소를 정했다.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침대로 파고들고 싶었지만 그전에 할 일이 있었다. 나는 외국에 갈 때면 늘 태극기를 가지고 다녔고, 이곳 콜롬비아에도 NIPA에서 세심하게 준비해 준 태극기를 가지고 와 숙소에 걸어 놓았다.



### 한국전 참전 전우회와 관계를 맺다

현지 도착 후 이틀 뒤 콜롬비아 독립기념일 행사와 거리 행진이 있었다. 나는 한국에서 가지고 온 태극기와 현지에서 구입한 콜롬비아 국기를 들고 주 정부 동료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 거리를 수놓은 다양한 옷차림 속에 참전 노병들의 모습도 보였다. 그중 지프에 쏙힌 태극기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무작정 다가갔다. 한국에서 왔다면 인사를 하니 다소 서투른 말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한국말이 들려 왔다. 한국전쟁 후 60여 년이 지났는데도 한국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한편 반가웠다. 현장에서 명함을 주고받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한국전 전우회와 꾸준한 관계가 이어지게 되었다.



1) 부가라망가 전우회 월례회(부가라망가 군부대 영내) 2) 신문(El FRENTE)에 실린 참전 전우회 소식

한국전 전우회는 콜롬비아 전역에 조직이 있으나 그들의 연령이 대부분 80~90대 노령인 탓에 지금은 주로 후손들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조직 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많아 보였다. 나는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이런저런 조언과 지원을 제공했고, 한국 대사가 직접 이곳을 방문해 직접 감사장과 메달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하기도 했다.



참전 군인 가정에서 보낸 즐거운 시간

콜롬비아인들도 우리들처럼 매우 가정적인 분위기이다. 그래서 그런지 현지 사람들로 부터 자기 가족 중 한국전에 참전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한 번은 자기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군인이라는 주 정부 직원 집에 초대된 적이 있는데,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분에 넘치는 호의를 받았다. 식후에는 어르신께서 직접 옛날 사진을 꺼내 보여주셨는데, 20대의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보니 요즘 유행하는 대중가요 <내 나이가 어때서>의 ‘거울을 보니 눈물이 나네요’라는 노랫말이 떠올랐다.

## 한국을 소개하다

이곳 주 정부 청사 분위기는 상당히 따뜻하고 자유로운 편이다. 매년 한 번씩 축제도 열리는데 그 자리에서 한국 상품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내가 쓰려고 가지고 온 적은 양의 생활필수품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그마저도 좋다고 하여 일주일간 소위 한국관(?)을 열게 되었다. 현지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물건들을 흥미로워 했고, 특히 녹차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젓가락으로 집어 올리면 선물로 준다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 1) 청사 건물 내 각종 전시관
- 2) 한국관(사무실 동료)
- 3) 내가 직접 한국 상품을 소개하는 모습
- 4) 젓가락질을 연습하는 콜롬비아인
- 5) 주 정부에서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소개했다

- 
- 1) Universidad de Santo Tomas에서의 강의소식
  - 2) Universidad Cooperativa de Colombia에서의 강의
  - 3) SENA 강당 및 교실





1) 다양한 직업 훈련 교실 2) 초콜릿 생산 교실 및 실습소

주 정부라는 특성상 자연스레 많은 기관과 사람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이곳 대학 (Universidad de Santo Tomas)으로부터 한국에 대하여 소개해 달라는 강의 요청을 받게 되었다. 스페인어로는 아직 강의할 수준이 안 된다며 고사했는데, 참석 대상이 국제 비즈니스 4학년 학생들로 모두 영어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닌가. 결국 교수를 포함한



1) 지방 축제(TONA)에서 2) 국립 공원 치카모차(Chica Mocha) 3) 지역 방문 활동 4) 현지인들과의 교류



60여 명 앞에서 2시간 동안 한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강의의 주된 내용은 한국의 문화와 풍습,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비결, 그리고 특징적인 한국 교육이었다.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 대해 모르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더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중간에 휴식까지 마다할 정도였다. 준비하는 동안 강의 내용을 일일이 영작하는 것이 힘들어 괜히 짓을 한 것은 아닌지 고민도 되었지만 막상 강의를 마치고 나니 부족한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준 학생들도 고마웠고 스스로 해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후로도 여러 대학과 직업 훈련 학교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국민 외교의 일익을 담당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생겼다.

### 콜롬비아만의 멋과 맛

본인은 재해 재난 자문관으로서 지방 출장 기회가 많은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풍습을 접할 수 있는 경험을 공짜로(?) 즐길 수 있었다.

콜롬비아의 여러 음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오르미가 꼴로나(Hormiga Culona)’였다. 오르미가 꼴로나는 오직 산탄데르에만 있는 개미 음식으로, 오르미가(Ormiga)란 스페인어로 ‘개미’란 뜻이고 꼴로나(Culona)는 ‘엉덩이’라는 뜻인데 아니나 다를까 개미를 유심히 보면 엉덩이가 아주 크다.

어느 날 직원이 오르미가 꼴로나를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망설이니 먹을 때까지 안 가겠다고 떼를 썼다.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는데 굳이 맛을 비교하자면 약간 씹쌀하면서 한국의 변데기 맛이 조금 났다. 여기서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고 일종의 정력제라고 인식되고 있어 거리에서 팔기도 하는데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고 대략 4~5월경에 나온다고 한다. 오르미가 외에도 현지 음식 중에는 꽤 입맛에 맞는 것도 많았다. 그러나



오르미가의 크기, 각종 음식에 재료가 되는 오르미가



현지 음식들



여러 종류의 열대 과일들

뭐니 뭐니 해도 익숙한 음식이 최고일 터. 뜨겁게 끓인 라면 한 봉지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한편 콜롬비아의 과일은 색다른 별미가 된다. 열대성 기후와 다양한 자연환경 덕분에 여러 종류의 과일들이 연중 생산되는데, 타국의 것과 비교해도 아주 맛이 좋다.

###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

평일에는 업무를 보느라 딴 생각을 할 시간이 없는 반면 주말에는 딱히 하는 일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여 매주 산행을 시작하면서 나의 주말 풍경은 전혀 다른 시간이 되었다. 사람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자연을 즐기는 시간 속에 자연스레 민간 교류도 이뤄졌다.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콜롬비아 사람들의 애국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매주 참석 회원 수가 60~70명 정도인데, 인원이 모이면 일단 콜롬비아 국가(歌)를 시작으로 산탄데르 주가(歌), 등산 동호회 노래를 이어 부른다.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 피를 부리는 사람도 있을 만한데, 회원들의 모습이 제법 진지하다. 공식적 자리가 아닌 사적인 동호회 활동에서 국가까지 부르는 비장한 모습을 보며 문득 나의 학창시절이 떠오르기도 했다.

등산 동호회 노래가 끝나고 이제 출발하나 싶었는데 다시 등산 안전을 위한 기도가 이어졌다. 좋은 날을 주심에 감사, 건강을 주심에 감사, 그리고 등산 중 자연을 해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바람, 안전하게 등산을 마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바람 등 여러 내용이 담긴 기도가 인상적이었다. 물론 콜롬비아가 가톨릭 국가라서 점에서 종교 의식이 일상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적인 동호인 모임에서까지 사람과 자연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색다른 감명을 받았다.

혼자서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 자유로운 시간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가급적 허투루 낭비하는 시간이 줄이기 위해 틈틈이 어학 공부, 지역 탐구, 건강 관리 등을 하고 있다. 특히 어학과 관련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많았는데, 스페인 어학원을 다니며 배운 내용을 집에서 복습하고, 또한 근무 시간에 동료 직원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 노력하면서 학습 효과를 배가할 수 있었다. 현지 직원들은 나의 틀린 발음이나 표현을 고쳐 주며 기꺼이 공부를 도와줬다. 처음에는 업무와 일상에서 동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이 여세를 몰아 올해에는 스페인어 자격시험인 <DELE>에 도전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건강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 등산 동호회 활동을 거르지 않았다. 그 결과 현지 축제에서 진행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가벼운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콜롬비아 파견 당시 과체중이었던 몸무게는 지극히 정상 몸무게가 되었다. 체중계 숫자를 사진으로 찍어 한국에 보냈더니 갈수록 오히려 줄어진다며, 나보고 콜롬비아 체질이라며 우스갯소리를 한다.

간혹 “혼자 생활하면 외롭고 지루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나는 외로움이나 그리움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유익하게 바쁘게 살고 있다. 하루하루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만끽하며 내게 이런 기회를 준 조국 대한민국과 NIPA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매순간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법과 현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주어짐에 감사를 드리며 열심히 생활하고자 다짐한다.



**콜롬비아**  
**오 창 건**

- 미국 해군대학원/ 경영과학/ 석사
- 前 국방부 근무
- 前 앙골라, 아프카니스탄, 네팔 유엔임무단
- WFK NIPA Advisors – 콜롬비아 Santander 주 정부 파견